

계룡복기자문집

그대들과 함께 걸어온 길

연변인민출판사

계룡복기자문집

그대들과 함께 걸어온 길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설화

책임교정: 최순관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与你们一同走过的日子: 朝鲜文 / 桂龙福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6

ISBN 978-7-5449-0328-8

I. 与… II. 桂… III. 新闻-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5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86202号

与你们一同走过的日子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1.75 字数: 4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328-8 (民文)

版次: 2008年6月第1版

2008年6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2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 리 말

근래에 가까운 기자친구한테서 “여직 ‘해산’을 못시켰어?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더 미룰것 없이 다그쳐”라는 독촉을 받곤 한다. 이는 나의 신문기사 작품집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자로 활약할 때만 해도 해놓은 일 별로 없으면서도 늘 분주했었지만 퇴직후에도 해보고싶은 일들이 너무 많았었다. 우선은 두달이고 석달이고 나들이문을 잠그고 조용히 새 감각을 찾고싶은 마음, 대학공부하는 두 딸의 뒤바라지도 계속해야 하며 유람길에도 나서고싶고 “두 사람 세계”도 꾸리고싶었으며 대도시생활은 또 어떨가... 하는 여생의 목표를 세우고 신경을 쓰다보니 이렇게 10년이 다가왔다.

퇴직을 앞두고 모 잡지사의 요청이 있었는데 속구구를 해보니 그 돈 가진 자식들의 대학공부, 경비 마련이 어렵도 없었다. 퇴직하자 바람으로 남하하여 북경, 소주, 항주, 상해에서 인생의 “제2직업”을 시작하였다.

이제는 작은 딸애의 대학공부도, 큰딸의 박사공부도 끝나고 나니 대번에 지출이 수입으로 변해 늘그막에 돈복에 물힌 기분이다.

최근에는 두 딸애가 나더러 속히 책을 만들라고 성화이다. 지난날은 자기네 공부뒤바라지를 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인제는 자기네가 부모의 소원을 성취해줄 때라며.

그런데 막상 보도기사를 책으로 내자니 마음 한구석에 내 글을 누가 보아줄가 하는 주저심이 들었다.

두 딸의 생각은 달랐다. “아무 걱정 말아요. 우선 두 딸이 볼거고 어머니네 형제, 또 형제의 자식들, 사촌에 팔촌, 사돈들까지 볼거예요. 더 중요한것은 어머니를 키워준 《연변일보》, 책속에 나온 주인공들, 퇴직후에 사귄 북방, 남방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듣고보니 그럴듯하기도 했다. 생각은 나누어 봐야 하고 막히면 통할 때도 있다는 도리를 미처 몰랐다.

80년대 중기로부터 연변일보사 정치생활부에서 《로년생활》 특집을 새로 꾸렸고 그후 여성보도, 민정보도, 《통신원의 빛》의 편집, 기자로 일했었다. 퇴직전 5년은 경제부의 농촌보도를 주로 했는데 보기 드문 흥년의 맛도 보았고 토지도급, 농촌의 “지각변동”, 농업의 기계화, 과학적영농 등 일대 특정된 농

촌의 변혁기를 겪었다.

시작의 고생은 끝남의 기쁨이란 말뜻을 다소 터득하게 되었다. 세월따라 군대말처럼 설새없이 뛰었던 덕으로 수천편의 보도기사를 써낼수 있었다.

보잘것없는 나의 글들이 목마를 때 시원히 넘기는 한모금의 랭수가 돼줄 수 있다면야 고마운거고 글의 몇토막이라도 독자들의 머리속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

이 작품을 위해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인 연변인민출판사 지도부와 책임편집,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성을 몰부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작품집에 후원을 해주신 한길출판회사 박종필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많은 후원을 준 나의 형제자매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싶다.

올해는 《연변일보》 창간 60돐이다. 이 작품집을 《연변일보》 창간 60돐 선물로 드리는바이다.

2008년 1월
저자가 상해에서

차 례

..... ✱ 뉴스, 통신편 ✱

“오신”의 장사법을 두고	3
고인을 기념하여 식수	4
대마촌의 “푸른 은행”	5
산간마을에 경사나기까지	6
향진산하 복무소 출로는 어디에?	9
씨오쟁이는 배고있으랴	11
흙년의 비교와 사색	12
농촌청년들의 도시진출 및 리농현상에 따르는 여운	16
논두렁을 사이둔 판다른 농사	19
“외상쪽지”거래가 언제 가야 해결되겠는지?	21
농민들의 새 사고	22
수지맞지 않는 전력관계문제 어떻게 푸나	25
농업대부금 바다에 돌던진 격	27
봄날의 농심	29
씨불임하는 농민들의 희망과 우려	31
폐경지가 남겨주는 사색	33
남새가격과 장바구니공사	37
실농군들의 추구를 두고	39
쌀시장에 대한 우려와 불안	41
대면적가을걷이 어떻게 하나	44
파란 많은 가을배추시장	45
“입쌀절”도 내왔으면	47
호주머니 돈 털어 제품 개발	48
30년 계주봉을 받아온 농심	50
기계화로 규모생산	53

바람직한 농민자세	54
훈춘농민들 열심히 땀다	56
복이 쌓으로 날아들어	58
농민가정 대학생 어떻게 섬기나	60
도마도수입 100만원 돌파	63
문화적차이뿐이 아니다	64
농민전문시장 설치 요망	68
과농들의 사과배 대량 적치	71
음식문화변화와 김장배추	73
윤진우 기술원 모시고 규모농사	75
사탕무우값 받지 못해 애간장	76
성수나는 기계농사	78
규모생산호의 고충	79
농촌에서 성행되는 리자돈	81
리동춘이 맞는 열세번째 봄	83
최죽송과 함께	85
농호의 입쌀값 왜 폭락되나?	87
푼돈벌이도 해야 치부	89
왜 “그림의 떡”이라 하는가	91
생태경제골-조양골	93
모래땅이 과수원으로	95
돈화 농민소유농기계 8,300여대	97
풍설위의 진실한 내막	98
기계화실현에 박차	100
헥타르당 만킬로그람 소출	101
독품용기처리가 소홀한탓에 빚어진 악과	103
풍년에 따르는 희열과 우려	105
수출호박씨생산에 잠재한 위기	107
감자가 땅속에 되묻혀서야	109
선조가 개척한 담배농사 되찾자	111
14만톤 여유곡 판매난	115
수준급현대농업후계자	117
명태가공 추세와 문제점	119
43명 농민 대학 찾아 자문	121

석문촌 농민들 왜 고향 떠나는가?	122
팔가자간장 또다시 식탁에	124
도시경리가 축목장주로	126
입쌀시장의 희열과 위기 잠재	128
입쌀가공업 현황 및 발전추세	130
실패에서 재기해야	132
조용하면서도 강한 청년사나이	135
술과 도박에 젖은 농촌을 깨우자	138
화학비료 왜 사지 못하는가	140
한길축산유한회사 시공에	142
주내경작지비옥도 낮아 문제 심각	143
외자유치와 수속간소화	145
나쁜 습관은 “학비”로	146

..... ✱ 스케치, 측기편 ✱

평정산별에 행복을 심는다	149
낙시터에 정들어	151
첫 로임	153
할아버지와 소녀의 바둑대결	154
“장수별”춤단장에 추석달 등실	155
백발홍안	157
백발동심	159
청춘에 사는 로인대학생	161
웃음속에서 사는 로인들	163
로인들의 백열전	165
이채를 띤 웅변모임	167
제1차 로인사교무시험에서	168
회비가 엇갈리는 농가생활	169
기계논갈이에 성수나	171
뜨락또르 사서 농사일 돕고	172
추석월병 먹으며 가을하긴 처음	174

평안촌 농민들 설준비에 바쁘다	176
------------------------	-----

.....✱..... 사 랑 편✱.....

전에는 마음뿐이었지만	181
살수록 더 살고픈 세상	183
고목에 다시 핀 꽃	184
며느리를 시집보낸 시어머니	185
40년 자란 선인장	187
분투와 사랑	188
키운 정	190
시련속에서 맺어진 형제	192
어찌하여 짝을 맺지 못하고있는가?	194
범상치 않은 생일날	196
그 정성 심청과 진배없었다	197
“효성탑”	199
“명월광”과 “흑살무짝지”	201
이국땅에서 올린 결혼식	204
어머니의 심혈	206
68돛 생일을 뜻깊게	208
큰어머니의 정성	209
땅은 농사군을 숙일줄 몰라	211
계획생육림-“록색은행”	213

.....✱..... 녀성생활편✱.....

날리라 붓끝을!	217
시어머니를 “시집” 보낸후	219
녀성들의 새로운 미용추구	220
그녀가 걸은 길	222

시간앞에서 달리는 황금옥	226
그녀가 걸어가는 길	227
어제의 “학생”이 오늘은 “스승”으로	229
변해야 잘산다	230
“총리”들 역할 잘 발휘	233
녀농민대표의 이미지	234
촌민들을 치부어로 이끄는 코기리기	236

.....✱..... 장 수 편✱.....

“신선로인들 도를 닦았다”	241
연변의 첫 장수로인	243
“장수별”이 북경서 반짝	245
백세로인이 받은 대접	246
장수로인들의 장수비결	248
101번째 가을을 맞는 할머니	250
“연변건강장수로인”들의 몇가지 특점	252

.....✱..... 로년생활편✱.....

80년대 로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255
7남매 공동히 부모를 부양	256
“외기리기”로인들이 많은 원인은?	257
유산문제를 두고 나눈 좌담	258
명절날, 환갑날의 웃단장처럼	260
여생을 즐겁고 보람있게	261
전국 “정영상”, “금방상” 획득자들에게 금메달을	263
로인들 평균수명 경충	264
78세에 입당	265

.....✱..... 민족, 민정편✱.....

북산골화장터에서 소문없이	269
조선족학생들과 더불어	271
청명이 오면 근심부터 앞선다	274
그의 아름다운 추구	275
“조선족처녀”- 정모분	277
닭털도 하늘에 오를수 있다	279

.....✱..... 지식, 교양편✱.....

“저는 커서 시장이 될래요”	285
어린이들에게 보여준 어른들의 본?	287
커피점에 갔다가	289
“백발소년”	291
언제 가야 풀리겠는지?	294
그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	296
100점과 “상금”	298
끝없는 배움의 길	299
숨은 노력	301
그는 다시 학교에 다닌다	303
다시 인간답게 살고자	305
룡암촌에 “금룡” 났다	307
제자양성으로 생명 이어진다	309

.....✱..... 탐방, 인터뷰편✱.....

황홀한 노을빛이 되려고	315
숯불은 이글거린다	317

오늘의 김시룡	318
늘그막사랑	320
장항촌과 함께 숨쉬리라	322
5가지 꿈 실현한 김기운회장	324
천혜의 땅에 뿌리내리려	326

..... ✱ **실화, 평론편** ✱

책임	331
외로운 사람	338
눈물고인 발자국	346
우수신문작품상을 받아안고	351
노력만이 성공이다	353
신문의 “신5성(新五性)”	360

뉴스, 통신판



“오신”의 장사법을 두고

나는 얼마전 연길서시장밖에서 남새와 과일을 파는 몇몇 장사꾼들이 매대 옆에 썩은 양파, 귤, 언감을 팔사납게 내버린것을 보았다.

물론 어떤것은 상품이 적고 수요자가 많으니 값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어떤 장사꾼들은 자기 물건이 어떤가는 고려해보지도 않고 남이 비싼 값을 부른다고 자기도 덩달아 비싼 값을 부르다가 제때에 팔지 못하고 썩여버리는 폐단이 있다.

일본텔레비죤속영화 “오신”에 반영된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적경쟁실질은 간파해야 할바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팔고 많이 파는 방법으로 수입을 늘이는 오신의 어물장사방법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신의 장사법을 배운다면 아까운 물건을 팔지 못해 썩여버리는 일이 적어지려니와 소비자들의 이익도 보호를 받게 되리라 생각된다.

1987년 4월 8일

동성용향 용성촌 남녀로소

고인을 기념하여 식수

어제 통정시 동성용향 용성촌에서는 박준화동지의 유지를 계승하여 고향산에 푸른 옷을 입히려는 취지밑에 박준화동지의 기념비에 가서 기념모임을 가지고 애송나무를 심었다.

박준화동지는 용성촌의 로주임이었고 용성촌의 민둥산에 푸른 옷을 입힌 식수조림창시자이다. 그는 일찍 50년대로부터 농민들을 이끌어 민둥산에 해마다 나무를 심었다. 하여 그의 생전에 용성촌에는 600여헥타르에 달하는 인공림과 과원이 조성되었다.

1962년부터 이 촌에서는 인공림의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70여만원어치에 달하는 목재로 촌기업소, 학교, 유치원 건물과 주택을 지었다.

이 촌에서는 그의 유지에 따라 남은 민둥산에 해마다 나무를 심어 이미 1,479헥타르에 달하는 인공림을 조성하였다.

이날 통정시 부시장 한중현, 동성용향 향장 박영길, 60년대 옛친우였던 로한식, 생전에 그와 함께 나무를 심었던 림중선 등 동지들이 기념활동에 참가하였다.

박준화동지의 식수조림에서의 기여를 세세대대로 전하기 위해 “설레여라! 용성골 이깎나무”라는 노래를 찬가로 정하였고 기념모임에 참가한 손님들과 마을의 남녀로소 200여명이 기념비주위에 애송나무 100여그루를 심었다.

1989년 4월 13일

대마촌의 “푸른 은행”

룡정시 동불향 대마촌에서는 요즘에 와서 40년 동안 꾸준히 민둥산, 황무지에 나무를 심은 혜택을 톡톡히 보고있다.

50년대초 이 촌 대부분의 경작지는 골물피해로 수토류실이 엄중하였다. 당지부서기 김창건의 인솔하에 촌민들은 1951년부터 해마다 동쪽골, 송림동, 농림동에 이깎나무, 흑송, 과수나무를 심었다. 하여 올해까지 인공림면적을 500헥타르로 늘였고 골짜기마다가 푸른 림지로 변하게 하였다.

이 촌에서는 1962년부터 림지의 혜택을 보기 시작하였다. 최근 몇해는 해마다 200여립방메터에 달하는 목재를 베내어 소학교, 촌민위원회 사무실, 유치원, 창고 등을 짓는데 썼으며 몇년사이에 150여호에 달하는 낡은 농가를 몽땅 새로 지었다. 그외 향중학교, 신용사, 양로원을 짓는데도 목재를 지원하였다.

이 촌 촌민위원회에서는 목재수입에서 얻은 자금으로 로당지부서기 김창건(71세) 등 로간부와 열사유가족, 오보호, 군인가족을 돌봐주었으며 1988년도부터는 촌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 시작하였다. 하여 지난해 촌민들의 인구당 수입은 1,259원으로 뛰어올라 전 향적으로 가장 높은 촌으로 되었다.

촌간부들은 “푸른 은행”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70년대초부터 간벌하는족족 그자리에 계속 나무를 심게 하였다. 또한 전문인원을 떼내어 나무관리를 강화하고 삼림보호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40여년간 큰불이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4월 10일부터 3일 동안 촌당지부서기 박룡수의 인솔하에 전체 당원들과 촌민 300여명은 또 3만그루의 이깎나무, 흑송, 사과배나무를 정성들어 심었다.

1990년 5월 15일